

부상병동 KIA ‘백업 3인방 출격’ 6월 반등 나선다



지난달 22일 1군 합류 후 8경기 11안타 4홈런을 몰아치며 존재감을 드러낸 KIA 윤도현.

부상에 신음하는 KIA 타이거즈가 윤도현(22), 오선우(29), 김석환(26) 등 백업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 6월 반등에 도전한다.

KIA는 3~5일 잠실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른 뒤 광주로 돌아와 6~8일 한화 이글스와 홈 3연전을 갖는다.

두산과의 '단군매치'는 하위권 탈출 싸움이다. KIA는 7위(27승1무28패), 두산은 9위(23승3무32패)다. KIA는 5위 kt와 2.5게임 차로 두산을 제물 삼은 도약이 필요하다. 양현종이 3일 선발로 나서 복귀하는 두산의 에이스 박빈을 상대한다. 주말 한화(2위)와의 3연전은 일찌감치 티켓이 매진된 상태. 홈팬들에게 승리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을 선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 시즌 초 예상됐던 '1강' 전력과는 거리감이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원인은 부상이다. 김도영이 개막전에서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복귀하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달 27일 키운 전에서는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전열에서 이탈했다. 최소 전반기 아웃이다. 여기에 나성범, 김선빈도 종아리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불펜 꼭대기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로 시즌 아웃, 롬블리프 활동하도 교통사고로 재활군으로 이동했다. 주전 라인업 곳곳에 '결원'이 생긴 셈이다.

현재 KIA의 라인업은 완전체와는 거리가 멀다. 최소 6월 말까지는 주전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 속, 이 시기를 버텨내는 것이 올 시즌 행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 주전들의 이탈은 그간 1군에서 기회를 잡기 힘들었던 백업 선수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최근 KIA는 예상치 못한 얼굴들의 맹활약 속에 조금씩 분위기를 바꾸는 중이다. 지난주 6경기에서 3승 1무 2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며 반등의 불씨를 지

Q KIA 타이거즈 주간전망

9위 두산·2위 한화와 각각 3연전
윤도현·오선우·김석환 활약 주목
선발 양현종 vs 박빈 맞대결 성사

2025 KBO 중간순위

〈2일〉

순위	구단	승-패-무	승률	승차
1	LG	35-22-1	0.614	-
2	한화	34-24-0	0.586	1.5
3	롯데	31-25-3	0.554	3.5
4	삼성	31-26-1	0.544	4.0
5	kt	30-26-3	0.536	4.5
6	SSG	29-26-2	0.527	5.0
7	KIA	27-28-1	0.491	7.0
8	NC	24-27-3	0.471	8.0
9	두산	23-32-3	0.418	11.0
10	키움	16-44-1	0.267	20.5

했다.

그 중심에는 윤도현이 있다. 김도영 입단 동기 윤도현은 타격 재능만큼은 김도영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잦은 부상과 수비 불안으로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김선빈의 공백 속 지난달 22일 1군에 합류한 뒤 8경기서 11안타 4홈런을 몰아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주 3경기 연속 홈런 포함, 4경기 4홈런, 생애 첫 연타석 홈런까지 작성하며 장

타력까지 입증한 윤도현은 이제 단순한 대체자가 아닌 확실한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즌 타율도 0.371까지 끌어올렸다.

좌타자 오선우도 몰오른 타격감을 보이고 있다. 타율 0.315 5홈런 16타점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향해 가는 중이다. 지난주 키움전에서는 2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하기도 했다. 이병호 감독은 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선우를 1루에 자주 배치하며 타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오선우는 그 기대에 부응하며 중심타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중이다.

2군 홈런왕 김석환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군 통산 369경기에 출전한 그는 타율 0.278(348안타) 66홈런 257타점을 기록 중이다. 2023년에는 18홈런 73타점을 책임지며 2군 홈런왕과 타점왕을 동시에 석권하기도 했다. 올 시즌도 2군 33경기에서 타율 0.345(113타수 39안타) 10홈런 27타점을 기록중이다. 그 동안 1군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주 5경기에 나서 0.350의 타율을 기록했고 4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타격을 보여줬다.

주전들의 줄부상에 고전하는 KIA지만 유망주들이 경험을 쌓으면서 자리잡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이번 주 하위권 두산, 상위권 한화의 경기에서 백업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치며 경기력을 끌어올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KBO는 시즌 289경기를 치른 2일 현재 누적 관중 499만9,364명으로 500만 관중 돌파에 636명만을 남겼다.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3일 경기에서 역대 최소경기 500만 관중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KBO리그 최소경기 500만 관중 돌파는 지난 2012년 기록한 332경기였고, 2위는 지난해의 345경기였다.

조혜원 기자



4경기 멀티히트 등 안정적 타격을 보여준 2군 홈런왕 KIA 김석환.

KIA 제공



광주 서석중학교와 서석고등학교가 최근 해남 우של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나란히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서석중·고, 전국검도회장기 동반 우승

광주 서석중학교와 서석고등학교가 제8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나란히 단체전 정상에 오르며 전국 최강 검도 위상을 증명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달 29일부터 1일까지 해남 우של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 각지의 검도 강호들이 대거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서석중은 남중부 통합단체전에서 원통중(3-0), 이곡중(4-0), 포천중(3-2), 진주중앙중(3-2)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부원중을 상대로 윤찬희(선봉)의 2-0 승을 시작으로 주장 허경도의 2-0 완승까지 전체 스코어 3-1로 제압,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서석중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제28회 용인대총장기, 대통령기 제47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에 이어 2025 전국대회 3관왕이라는 값진 성과를 올렸다.

개인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권민수(2년)가 남중부 통합개인전 준우승, 허경도(2년)가 통합 개인전과 2학년부 개인전에서 나란히 3위를 차지하며 팀의 저력을 입증했다.

서석고 역시 남고부 통합단체전에서 뛰어난 조직력과 집중력으로 강호들을 연파했다. 예선에서 광명고(5-0), 울산중앙고(4-2), 인천고(3(8)-3(7)), 김해영고(4-2)를 차례로 꺾은 뒤, 결승전에서는 충남 온양융화고를 상대로 4-1 승리를 거두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조혜원 기자

학년별 단체전에서도 2학년부(오승준, 채희준, 정우민)와 3학년부(서규원, 강현우, 이정환)가 나란히 3위를 기록하며 전 학년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개인전에서도 오승준(2년)이 남고부 통합개인전 3위, 정우민(2년)이 2학년부 개인전 3위에 올랐다.

서석중과 서석고는 학교법인 유당학원 산하로 서석중에서 서석고로 자연스러운 선수 진학이 가능해 체계적인 검도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중·고교 각각 별도의 지도자가 팀을 맡고 있지만 훈련 방향과 선수 관리, 경기 운영 등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 이번 중·고 동시 우승은 이러한 연계 시스템과 협업의 결실이다.

정동진 서석중 교장은 "전국대회 3관왕 달성과 중·고 동시 우승은 학생들의 노력과 지도자들의 팀워크, 그리고 학교의 지원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서석 검도가 한국 검도의 중심에서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찬국 서석고 교장은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훈련에 임한 지도자와 선수단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2세 해결사’ KIA 최형우, KBO 5월 MVP 후보

5월 한달간 25경기 안타 35개

KIA 타이거즈 최형우(42)가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5월 월간 MVP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2일 KBO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최형우는 25경기에 출전해 타율 0.407, 장타율 0.721, 출루율 0.505를 기록하며 해당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월간 타율 4할대는 최형우가 유일하다. 안타 35개(공동 3위), 타점 23개(5위)로 중심타선 역할도 완벽히 소화했다.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며 전력 운용에 어려움



최형우

을 겪는 상황에서 최형우는 묵묵히 타선의 중심을 지켰다. 위기 상황에서 해결사로 나서는 경기들이 이어졌고 팀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감은 단연 돋보였다.

투수 부문에서는 kt 오원석(5경기 4승 무패, ERA 1.95), SSG 앤더슨(5경기 3승 무패, ERA 0.30), 한화 폰세(3승 무패, ERA 1.91, 탈삼진 44개)가 후보에 올랐다. 야수 부문에서는

삼성 다이즈(홈런 10개, 타점 29개), kt 안현민(홈런 9개, 타점 29개) 등이 최형우와 경쟁한다.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월간 MVP는 팬 투표(50%)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50%)를 합산해 선정된다. 팬 투표는 2일 오후 1시부터 8일 자정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월간 MVP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되며 국내 선수 수상 시에는 신한은행이 해당 선수의 모교(중학교)에 200만원을 기부한다.

조혜원 기자

프로야구 올스타전 ‘베스트 12’ 구단별 팬 투표 후보 명단 발표

KIA 네일·김태균·김도영 등 선정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 12' 구단별 팬 투표 후보 명단이 정해졌다.

KBO는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 나갈 '베스트12' 후보 구단별 팬 투표 명단을 2일 발표했다.

각 구단은 포지션별로 1명씩 총 12명의 선수를 추천했고, 전체 10개 구단에서 총 120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투수는 선발과 중간, 마무리 1명씩 총 3명으로 후보 명단이 추려졌다.

올스타전은 기존처럼 '드림 올스타'(삼성·두산·KT·SSG·롯데)와 '나눔 올스타'(KIA·LG·한화·NC·키움)로 나뉘어 진행된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선발 제임스 네일, 중간 조상우, 마무리 정혜영을 비롯해 포수 김태균, 내야수 김도영·김선빈·박찬호·위즈덤, 외야수 나성범·최원준·이우성, 지명타자 최형우

가 팬 투표 후보에 선정됐다.

팬 투표는 2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21일간 진행되며 KBO 인터넷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애플리케이션,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의 신한 SOL뱅크 앱 등 3개의 투표 페이지에서 1일 1회씩 총 3번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집계 결과는 23일 발표되고, 올해 올스타전은 7월 12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개최된다.

조혜원 기자

이승엽 두산 감독, 성적 부진 책임 자진 사퇴

조성환 코치, 오늘부터 감독 대행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48)이 계약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두산은 2일 "이승엽 감독이 올 시즌 부진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 분위기를 쇄신을 위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구단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3일 KIA 타이거즈와 홈 경기부터 조성환 퀀

리티컨트롤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는다.

두산은 시즌 초반 마운드의 기동 박빈과 홍건희의 부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이 겹쳐 이날 현재 9위로 처졌다.

코치 경험도 없었던 초보 사령탑 이승엽 전 감독은 2022년 9월에 그친 팀을 이어받아 2023시즌부터 두산을 지휘했다.

두산은 2023년 정규시즌 74승 2무 68패,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시즌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세 차례 우승(2015년, 2016년, 2019년)을 차지한 기억을 떠올린 두산 팬들은 팀의 2023년 성적에 만족하지 못했다.

2023년 마지막 홈 경기가 된 10월 16일 잠실 SSG 랜더스전 뒤에는 마이크를 잡은 이 전 감독을 향해 아쉬운 섞인 야유를 보내는 팬도 있었다.

지난해에도 두산은 2023년과 같은 승률(0.521·74승 2무 68패)을 찍었고, 순위는 한 계단(4위) 높였다.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는 성공했으나 '진짜 목표'였던 3위에 오르는 못했다.

연합뉴스